

Biweekly Tex+Fa Brief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격주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업계 및 해외시장 동향, 주요 통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Biweekly Tex+Fa Brief”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주요 이슈

☞ 섬산련, ‘프리뷰 인 차이나 2015’ 개최

- 섬산련은 한국 패션의류 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중국 CHIC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 한국관은 이탈리아에 이어 두번째 큰 규모(3천㎡)로, 98개 브랜드가 참가해 한국 패션기업만의 독창적인 개성과 감각을 다양하게 선보임. 또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위해 한국 브랜드 패션쇼(8회), 한중 패션비즈니스 교류회, 현지언론과의 1:1 인터뷰, 코리아 패션 스타일관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 한편, CHIC 전시회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20개국 1,200여개 브랜드가 참가했으며, 올해에는 인터텍스타일 전시회가 처음으로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면서 이목이 집중됨

☞ 한-미 FTA 발효 3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 돌파 눈앞

- 한미 FTA 3년차인 지난해 FTA 효과와 더불어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양국 교역이 크게 증가(1,156억불, 11.6%↑)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2.97%)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경쟁국인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2.74%p)도 최저 수준을 기록. ‘14년 對미 수출은 전년대비 13.3%, 수입은 9.1% 증가해 對세계 수출(2.3%) 및 수입(1.9%)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FTA 관세 철폐·인하 품목 수출은 5.5% 증가해 전년(1.9%) 보다 증가율이 확대됨. 한편, 섬유류의 경우 ‘14년 對미 수출은 14.3억불(전년대비 1.4% 증가)로 ‘12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미국 시장 점유율은 0.9%로 변동이 없었음

☞ 관세청, 국제우편을 통한 역직구 수출실적 인정

- 관세청은 3월 23일(월)부터 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특급우편(EMS) 역직구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힘. 그동안 역직구 수출은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서는 실적 집계가 어려웠음. 이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 목록과 전산연계를 추진함. 이로 인해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집계가 가능해 졌으며, 향후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과 부가가치세 환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업계 동향

☞ 해외 SPA브랜드에 밀려 국내 중견패션업체 실적 부진 심화

- 국내 SPA브랜드 코데즈컴바인이 지난 10일(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국내 중견패션업체들이 해외 SPA브랜드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 유니클로를 선두로 상위 3개 SPA브랜드는 모두 외국계 기업들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세 브랜드의 국내 연매출만 1조원을 넘어섬. 이로 인해 연매출 1,000억원~2,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모피시장 1위 진도의 지난해 매출은 1,209억원으로 20.7% 급감했고, 여성복업체 데코앤이(구 데코네이션)도 매출이 1,071억원으로 19.2% 감소함. 중국사업 비중이 60%를 넘는 더베이직하우스도 국내 실적만 보면 지난해 매출이 1,462억원으로 12.4% 줄어듦

☞ 2015 F/W 서울패션위크 3월 20일 개막

-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2015 F/W 서울패션위크가 3월 20일(금)부터 25일(수)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최정상급 디자이너의 패션쇼 '서울컬렉션'(총 61회)을 비롯해 신예 디자이너들의 무대 '제너레이션넥스트'(총 21회), 중소 패션업체 35개사가 참여하는 트레이드쇼인 '서울패션페어'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최근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국내 편집샵 및 패션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해지면서 금번 패션위크에 대한 참가 디자이너와 패션계의 관심이 증대

☞ 대구경북 화섬직물업체 내수 브랜드업체와 협력 확대

- 화섬직물산지 소재기업들이 내수 브랜드와의 직거래 비중을 높이고, 내수 브랜드업체와의 밀착 마케팅을 통한 기획생산과 수요 기반의 마케팅을 강화. 특히 자체 소재개발 및 기획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브랜드 직거래 포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컨버터 기업을 통한 오더 베이스의 임가공 기업들 가운데서도 상당수 기업들이 브랜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또한, 브랜드와의 공동소재개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증가. 아울러, 산지 기업과 패션업체간 직거래 지원을 위한 대구섬유마케팅센터(DMC) 회원사의 거래 실적도 지난해 약 27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아웃도어산업협회 초대회장 선출

- 사단법인 한국아웃도어산업협회는 지난 3월 12일(목) 노보텔엠베서더 강남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만영 (주)콜핑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 아웃도어협회는 '13년 10월 14일 공식 출범했지만 그동안 초대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아웃도어 기업 23명으로 이뤄진 이사진들로 협회를 운영.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 협회 명칭을 기존 한국아웃도어산업협회에서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로 변경키로 의결. 이는 스포츠 명칭을 추가해 협회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스포츠와 아웃도어를 포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이번 초대 회장 선임으로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게된 협회는 향후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

◆ 해외시장 동향

☞ '14년 이탈리아 섬유산업 회복세 기록

- 지난 2년간 둔화되었던 이탈리아 섬유·패션산업이 지난해 회복세를 보임. SMI(이탈리아 섬유·패션협회) 자료에 의하면 '14년 이탈리아 섬유(견직물, 모직물, 린넨, 편직물) 총매출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80억 유로를 기록. 전체 이탈리아 섬유·패션산업 총 매출의 15.3%를 섬유가 점유하는 가운데 이중 모직물 37.2%, 면직물 21.5%, 편직물 19.9%, 견직물 17.9%, 마직물이 3.5%를 차지. 지난해 섬유·패션산업 수출액은 3.3% 증가한 44억 유로, 수입은 6.5% 증가한 20억 유로로 24억 유로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국가별(추정치)로는 독일(△3.4%), 프랑스(△1.9%) 등으로 수출이 줄었으나, 루마니아(8.3%), 스페인(13.8%), 미국(10.0%) 등으로 수출은 늘어남. 수입은 전체의 26.1%와 21.6%를 차지하는 중국과 터키로 부터의 수입이 각각 7.4%,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4년 미국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 3,230억불 기록

- NPD Group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은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에 3,230억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 이는 전년대비 1% 상승한 수치로 액티브웨어, 운동경기용 신발, 가방 등의 판매가 증가한데 기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부문 매출은 2,083억불로 1년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신발류와 액세서리는 각각 2% 증가한 620억불과 527억불을 기록. 최근 미국에서 요가복, 운동복 등 스포츠용 고기능성 액티브웨어(Activewear)가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면서 의류부문에서 여성용 액티브웨어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8% 증가했으며, 스포츠 브라, 폴로/골프/럭비 스타일 상의, 스포츠 저지, 레깅스 등의 판매가 강세를 나타냄. 신발 부문에서는 아동화가 9%의 증가율을 보였고, 액세서리는 남성용 가방, 주얼리 판매가 각각 35%, 24% 증가함

☞ 라나프라자 사고 이후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 둔화

- 지난 '12년 4월 1,000여명 이상이 희생당한 라나프라자 의류공장 붕괴 사고 등에 따른 오더 축소로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음. 지난해 미국의 방글라데시 의류 수입 물량은 4.9% 감소해 '13년(13.3%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용 우븐셔츠(△22.0%), 면제바지(△21.7%)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방글라데시의 對미 면제의류 수출 비중이 76%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화섬제 의류 선호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EU의 경우 '14년 방글라데시로 부터의 의류 수입 물량이 특혜관세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지만, 티셔츠(HS 6109) 수입 증가율은 3.2%로 전년(10.9%)에 비해 크게 둔화됨

◆ 주요 통계발표 자료

☞ '15년 2월 섬유류 수출입 실적

- 2월 수출은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와 중국 춘절연휴 영향, 선진국 수요 둔화 등으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9.3% 감소한 9억5천1백만불을 기록. 수입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부터 제품류 수입이 급증하면서 23.4% 증가한 11억2천3백만불을 기록

구 분	수 출(단위 : 백만불, %)			수 입(단위 : 백만불, %)		
	'14년	'15.2월	'15.1~2월	'14년	'15.2월	'15.1~2월
섬유화이버	1,413(△1.5)	91(△18.1)	189(△14.8)	223(△4.1)	15(△11.5)	32(△11.3)
사류	1,644(△4.6)	115(△9.4)	233(△10.1)	2,091(△1.8)	144(△5.0)	298(△6.1)
직물류	9,262(△1.1)	534(△21.8)	1,196(△14.3)	1,866(4.2)	132(11.5)	285(6.3)
제품류	3,617(5.5)	211(△18.1)	476(△9.5)	10,477(11.9)	832(33.5)	1,715(16.8)
섬유류 계	15,936(△0.1)	951(△19.3)	2,094(△12.8)	14,658(8.4)	1,123(23.4)	2,331(11.5)

☞ 전경련 비금융업 상장회사 실적 분석 결과

- 전국경제인연합회 비금융업 상장회사(1,103개사)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14년 3분기(누적)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함. '12년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11.4%에 달했지만 '13년 2.3%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감소세로 전환. 영업이익은 17.9%나 줄어 성장성과 함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71.7%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영업이익은 '12년 8.6%, '13년 9.3% 증가했지만, '14년 3분기(누적)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3.4% 급감. 제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컸던 것은 전체 제조업 영업이익의 61.0%를 차지하는 상위 8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30.3%)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원자재 가격 동향

- ☞ 원면 가격은 중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지난해 원면 가격 하락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국 정부의 수입 제한 및 비축원면 판매 정책, 이로 인한 세계 원면 재고 증가, 폴리에스터 소비 증가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침. 미국 농무부(USDA)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4-'15시즌 세계 원면 재고는 8.2% 증가한 2,214만톤에 달할 전망. 화섬원료 가격은 국제유가 및 PX 가격 하락, PTA 재고 증가, 중국의 섬유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약세를 보임

품 목(단위)	날짜	조건	가격	1주전 대비	4주전 대비	3개월전 대비
원면(¢/LB)	3/13	미국('15년 5월 인도분)	60.50	△3.9%	△4.5%	△1.1%
PTA(\$/MT)		CIF China	635	△0.8%	6.7%	△5.7%
MEG(\$/MT)		(90 days credit term)	825	0.9%	3.1%	7.1%

섬유패션산업 동향

Biweekly Tex+Fa Brief

-
- 발행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 홈페이지 : www.kofoti.or.kr
 - 전화 : 02-528-4024 / 팩스 : 02-528-4070
-